



김창열의 '물방울' 광주에 댕긴다

광주시립미술관 김창열전(5월6일까지) 미리 보니

화폭에 이슬처럼 알알이 맺힌 물방울이 금방이라도 떨어져 내릴 것만 같았다. 물방울은 고요했고, 무색무취했다. 무언가를 품고 있다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구슬처럼 무리지어 다니는 비정형의 물방울들은 미술관 조명 아래서 더욱 투명하게 빛났다. 마치 조명으로 인해 생긴 듯한 물방울 그림자가 화폭에 펼쳐지기도 했다.

캔버스에 흠뻑 젖진 물방울의 영롱함에 순간 손으로 만지고픈 충동이 들었다. 하지만 어느새 물방울은 화폭으로 스며들어 사라져버렸다. 마대 위에 남은 물기가 물방울의 흔적을 말해줬다.

물방울에 매료돼 지난 40년 세월 물방울 그림을 그리는 데 몰두해온 화가 김창열. 그는 '김창열'이라는 이름보다 '물방울 화가'로 더 잘 알려져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김창열 화백의 대표작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21일부터 5월6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설치 작품 3점을 포함해 모두 46점이 전시된다.

전시 개막을 하루 앞둔 20일 미술관을 찾았다.

전시장 입구에는 김 화백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는 '제사'(1964)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 작품은 한국전쟁 등 참상을 몸소 겪었던 그가 사대의 좌절감과 절망감을 담아낸 작품으로, 무거운 색으로 두텁게 채색한 캔버스를 가로지르는 선이 인상적인 작품이다. 한국전쟁으로 15살 난 여동생을 떠나보내야 했던 아픔이 서려 있기에 작가에게는 더욱 특별한 작품이기도 하다.

전시를 기획한 홍윤리 학에서는 "수십 년 세월을 여행하다가 3~4년 전 다시 선생님(김창열 화백) 품으로 돌아온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이 작품을 시작으로 김 화백의 초기 작품인 '제사' 연작이 전시되고 있었고, 발걸음을 옮기자 물방울의 시초가 된 '현상'(1971)이 전시장을 장식하고 있었다. 근작들과 달리 노란 바탕 캔버스에 있는 작은 구멍들에서 스며 나오는 물의 형상은 겨울 얼음이 녹아내리듯 표현돼 있었다.

1960년대 미국을 거쳐 프랑스로 향한 그는 파리 외곽의 마구간에 머물렀다. 거기에서 물방울을 만났다. 어느 날 아침 씻기 위해 대야에 물을 담으려다 옆에 있는 캔버스 위에 물방울이 튀면서부터다. 햇빛에 비친 물방울은 찬란하게 빛났다고 했다. 또

한국전 참상 담아낸 '제사' 눈길

설치작품 3점 등 46점 전시

물방울 외길 40년 화업 회고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보내야 했던 겨울, 그리고 찾아온 아침에 얼음이 녹으면서 문틈 사이사이에 맺힌 물방울은 그에게 확신을 줬다. 그때부터 그는 무색무취한 물방울을 평생 그렸다.

바하늘에 생명수처럼 반짝이는 물방울을 그린 '밤'(1972)을 지나면 마대에 무리지어 있는 물방울들을 만날 수 있다. 화폭을 오고 가는 다양한 형태의 물방울은 수정처럼 투명했고, 또 반짝였다. 무수히 많은 물방울은 스미고, 흘러내리기를 반복했다. 지극히 사실적이지만 현실에서 만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물방울들. 작가는 쉽없이 물방울을 들여다봤을 것이고, 또 그랬을 것이다. 투명한 물방울이 가진 아슬아슬한 그림자는 무언가의 흔적인 것만 같았다.

김 화백의 설치 작품도 인상적이다. 전시장 한가운데 걸린 '묵상'(2004)을 통해서도 또 다른 전시장을 만날 수 있다. 김 화백의 물방울 그림들이 투명한 유리로 만든 묵상에 비치면서 색다른 느낌을 전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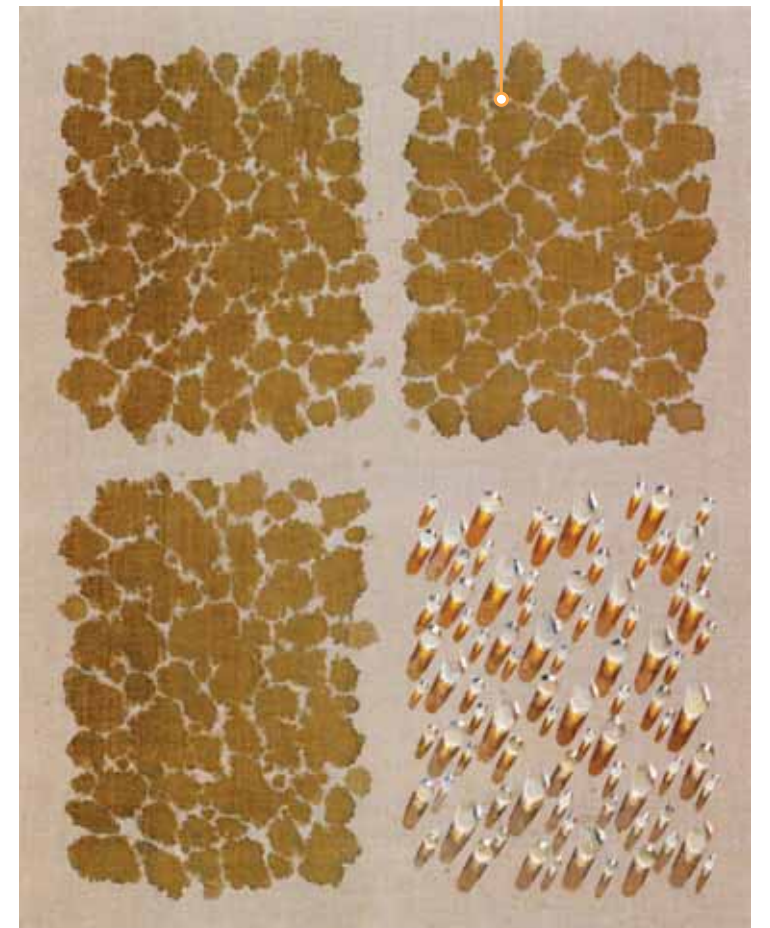
작가는 어린 시절 조부에게 천자문을 배우면서 종이 새가 날개 번갈 때까지 글씨를 썼다고 한다. 먼 파리에서 그는 그때의 향수가 떠올랐고, 그의 작품 '회귀' 연작에 고스란히 담겼다. 화폭 속 한문들은 먹이 화선지에 스미듯, 물이 종이에 번지듯 표현됐고, 물방울들은 그 사이를 오가며 알알이 맺혔다.

홍윤리 학에서는 "어린 시절 대동강변에 살았던 기억은 선생님이 평생 동안 물방울을 그리게 한 원동력이었다"고 말했다.

전시장을 나오면서 언제가 그가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다. "너절하지 않게 살고 싶다." 개막식은 21일 오후 4시다. (월요일은 휴관) 문의 062-613-7100. /김경민기자 kki@



'물방울'(1974년 작)



'물방울'(1987년 작)

▲김창열은
1929년 평안남도 맹산 출생
1948-1950년 서울대 미술대학 수학
1966-1968년 뉴욕 아트 스투던트 리그에서 판화전공
1996년 프랑스문화훈장
2012년 은관문화훈장
프랑스 퐁피두센터, 미국 보스턴현대미술관 등 작품 소장



봄바람 같은 그대 목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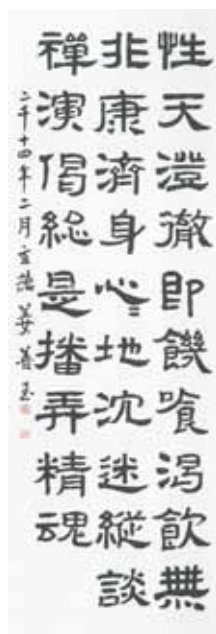
테너 김경렬 독창회 오늘 금호아트홀

테너 김경렬 독창회가 21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광주예술고등학교를 수료한 김씨는 올 가을 독일로 떠나 본격적인 성악공부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주 레퍼토리는 카치니의 '아마릴리, 내 사랑', 스칼라티의 '오랑캐꽃', 벨리니의 '방랑하는 은빛 달이여', 도니제티의 '영원한 사랑과 믿음' 등이다.

'방랑', '어디로', '멈추어라', '나의 것' 등 슈베르트의 유명한 연가곡집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의 수록곡도 만날 수 있다. 그밖에 슈만의 '호두나무'와 '봄향', 김진균 곡 '그리움', 김효근 곡 '눈' 등 한국 가곡도 들려준다.

호남예술제 은상, 목포대 음악콩쿠르 1등, 전국호신음악콩쿠르 1위 등을 차지했으며 한소리회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에도 출연했다. 피아노 반주는 김민준(서울대 기악과 3년)씨. 문의 010-6371-4760. /김미은기자 mekim@



강선옥 작 '채근담'

'一心'

금목회 서예전, 27일까지 금호갤러리

금호고속(대표 김성산) 사내 서예 모임인 금목회(회장 강선옥)가 21~27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제1회 서예전'을 개최한다.

금목회는 직원과 가족들의 건강한 취미생활을 돕기 위해 2007년 설립한 주부 서예반을 모태로 만들어진 금호고속의 대표적인 사내 문화동아리다. 회원들은 석계(石溪) 장주현 선생의 지도하에 붓글씨를 공부하고 있다.

회원 45명은 이번 전시에서 모두 7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석계 선생의 지도하에 맹자, 채근담, 논어 등에 나오는 구절을 일심으로 한 점, 한 획 정성들여 쓴 작품이다. 전시 작품 중에는 방학 때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문화교실에 참석했던 임직원 자녀들의 작품도 포함돼 있다.

회원들은 "서예전을 통해 그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게 되었다"며 "공부도 부족하고 전시회도 처음이라 부끄럽지만, 마음 받음 일군다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열심히 서예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시 오프닝 행사는 21일 오후 5시30분 열린다. 문의 062-360-8438. /김경민기자 kki@

since 1982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국립공원 무등산을 품에 안은 **休·安·林** 의 궁전호텔 무등파크가 여러분을 **VIP**로 초대합니다.

고품격 맞춤 웨딩전문호텔 무등파크

광주 시내에서 온천욕을 즐기고 싶으신가요?
부담없는 **호텔 VIP회원권**이 필요한가요?

파격조건 회원 모집중

VIP 연회원권 신설!

히노끼 천연 온천탕/사우나·헬스이용권 (개인가족별)

신년웨딩 큰잔치 2014년 2~3월 중

웨딩 큰잔치 메뉴(200분 이상)

스테이크 **33,000**부터(부가세 별도)

뷔페 **28,000**부터(부가세 별도)

무료제공 특전 : 객실 2실, 꽃길, 펌백실, 음료, 주류

일반웨딩 200분 대형웨딩 1000분 수용가능

웰빙 샐러드 뷔페(10층스카이라인)

부담없는가격 · 풍부한 샐러드 바

웰빙의 야채와 최고기 샐러드

주중 12,000원 / 주말 15,000원 / 어린이 7,000원(부가세포함)

호텔무등파크 문 의 062)226-0011 예약실 062)221-2700